

광주, 교회발 코로나 감염 확산... 시민들 '허탈과 공포'

광산구 국제학교 109명 이어
서구 안디옥 교회서 10명 추가
신규확진 많고 활동영역 다양
역학조사·동선 추적에 어려움
주말이 고비... 시민 협조가 절실

소강세에 있던 광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종교 시설 관련 국제학교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가 허탈감과 동시에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다. 감염된 학생과 일부 교사들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단 합숙을 했으며, 상당수 교사들은 감염 후에도 출퇴근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부분 무증상 감염자였던 학생과 교사들은 합숙생활을 하면서 교회와 인근 편의점 등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n차 감염 발생하고 있다.

〈관련기사 2·3·6·7면〉

하지만 방역당국은 감염자 수가 워낙 많은 탓에 역학조사를 통한 확진자 동선추적, 접촉자 파악, 감염 위험군 격리조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광주시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국적인 집단감염 사태의 발원지인 IM선교회 관련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이날 오후 6시 기준 교사 25명, 학생 77명, 교인 7명 등 109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연령대는 교사는 30대 이상 20명, 20대 2명, 17~19세 3명이다. 학생은 초등학생인 8~13세가 38명으로 가장 많고 14~16세 27명, 17~19세 7명, 7세 이하 5명 등이다.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한 이 학교에는 광주 출신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타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각각 11명, 경남 10명, 전남 7명, 인천·충북·경북·전북 각각 3명, 부산 2명, 대전 1명 등이었다. 광주 TCS 국제학교는 중고등 과정(6년제) 비인가 학교로,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과 일부 교직원들이 합숙교육을 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IM 선교회 관련 시설만 광주에 4곳(합숙 2곳·비합숙 2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나머지도 전수검사를 진행중이다.



분노의 외침·달걀 세례

100명 이상의 코로나19 집단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운남동 소재 한마음교회가 운영하는 광주TCS 국제학교 앞에서 인근 주민이 방역을 무시한 교회와 국제학교 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왼쪽〉집단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와 광주TCS 국제학교 건물 외벽이 분노한 시민들이 던진 계란으로 얼룩져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TCS 국제학교발 n차 감염은 현재 진행형이다. 속도도 매우 빠르다.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교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교사(6명)와 원생(3명) 등이 감염된 데 이어 교사들이 다니는 교회 교인 6명도 추가 확진 됐다. 이날 오후엔 이 학교 관련 가족과 지인 6명이 추가되는 등 총 누적 확진자는 1663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GPS 분석 등을 통해 확진 교사와 학생의 동선을 분석하고 추가 예방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너무 많고 활동영역도 다양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합숙학생의 경우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생활한 탓에

개인 진술만 믿고 동선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생들은 광산구 운남동 소재 학교에서 전용버스를 이용해 장덕동과 진곡산단 등에 있는 합숙시설 2곳을 오가며 집단생활을 해왔고, 편의점 등 주변 상가를 자주 이용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아직까지 학생들의 외부 동선과 연관한 역학조사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등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이 학교 감염학생의 부모인 광주 서구 안디옥 교회 부목사가 감염되는 등 n차 감염이 확산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24일 오전 7시 예배에 참석한 광주 1516번 관련 확진자가 10명이나 발생, 방역당



태풍급 바람·한파 3~10cm 눈 내린다

광주·전남 29일까지

오는 29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태풍급 바람과 강추위를 동반한 많은 양의 눈이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 낮 동안 강수 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면서 전남권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며 "여기에 서쪽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고기압에 의해 기압차가 커지면서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기상청은 찬 바람이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29일 오전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광주·전남에는 3~10cm, 전남북부지역에는 최대 15cm의 눈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

기온도 푹 떨어지면서 28일 아침기온은 영하 5~3도에 낮 기온은 7~9도 분포, 그리고 29일은 아침기온 영하 8~영하 2도, 낮 기온 0~3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모든 비인가 교육·합숙 시설 코로나 검사 받아라”

광주시 행정명령, 모든 유치원 2월 14일까지 휴원·원격수업 전환

광주시가 모든 비인가 교육·합숙 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모든 유치원은 28일부터 2월 14일까지 휴원 조치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용성 광주시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제2, 제3의 IM 선교회 관련 시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교시설과 관계없더라도 5인 이상의 비인가 교육 시설은 물론이고 인가·교육시설 여부를 떠나 5인 이상 합숙시설은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광주지역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은 10곳이며 이 가운데 합숙 형태가 3곳, 비합숙 형태가 7곳이다. 이들 중 IM 선교회 관련 시설은 4곳(합숙 2곳·비합숙 2곳)으로 파악된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시는 이들 시설 교사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고려해 모든 어린이집(1072곳)에 대해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휴원하도록 했다. 확진자가 나온 국제학교의 교사들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교사로도 참여하고 있어 지역

감염 확산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휴원 기간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정상 출근해 돌봄 등 긴급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학 차량 운행과 특별활동은 중단된다.

이 시장은 “이번 사태는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 감염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장소와 시설을 발견하면 관할 구청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은 또 교회발 대규모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선 500여명(총신도 1500여명)의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진단검사 대상에 올랐다.

송해자 광주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나 “할 수만 있다면 147만 광주시민 모두를 일시 격리 조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추가 조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대확산이 우려된다.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방역 협조를 호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쉬운 초동대처가 집단감염 화 불렀다	▶2면
TCS 국제학교 인근 상인들 '망연자실'	▶6면
곡성읍에 예술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16면
KIA 연봉 계약 완료 - 전상현·최원준 '약'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2weeks
고함양 고함도 4주만에 눈가 및
팔자 주름 등을 20% 개선시킨
IOPE LAB